

광주시 4일간 이동량 39.1%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 이후

”정부·시민 힘 모으면 방역 역량 증대”

광주광역시와 지난 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상향 조치한 이후 4일 간 이동량이 3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광주시 휴대폰 이동량 분석결과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첫날(2일)의 이동량은 전일(1

일) 대비 10.1% 감소했고, 단계 격상 이후 4일째인 5일은 단계 격상 직전보다 39.1% 감소했다.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줄어들었지만, 소모임이나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산발적 확산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이태원 클럽·쿠광 물류센터 사례와 달리

현재는 충청·호남권에서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했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호남권과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주 지역의 경우는 지난 2일 거리두기 상향 조치 이후 나흘간 휴대폰 이동량이 지난 1일 대비 39.1% 감소해 시민들의 이동이 상

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이라며 “방역당국 조치에 따라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주신 광주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광주·전남 지역의 환자 추이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시민이 힘을 모은다면 방역 역량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호 기자

등구, 광주문화재야행 비대면 프로그램 호응

광주 등구가 4년 연속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한 광주문화재야행 ‘등구 달빛길’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3~4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비대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이중 슬기로운 랜선 문화생활을 표방하며 VR(가상현실)을 활용해 제작한 스마트야행투어 ‘방구석 야행! 광주 문화재 VR투어’가 시민들 눈길을 끌었다.

서구, 야간 불법현수막 특별 단속 실시

광주 서구가 야간에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야간 동안 설치되는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에 서구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평일 2개반 8명, 공휴일 1개반 3명 등 정비반에 추가로 야간 1개반 3명을 편성해 정비·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야간 단속시 1차 적발에 한해 민생안정을 위한 안내 차원에서 행정 처분을 예고하는 계도를 실시한다.

남구, 무등시장에 스마트 도서관 2호점 개관

광주 남구 관내 스마트 도서관 2호점이 오는 8일 문을 연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무등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남구 366 스마트 도서관 2호점 개관식’ 행사가 열렸다.

스마트 도서관 2호점은 지난해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0년 U-도서관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남구는 유동 인구가 많으면서 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부족한 주월동 무등시장 일대를 최적지로 꼽아 스마트 도서관 개관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문을 연 무등시장 스마트 도서관 2호점은 이곳 시장 공영주차장 내에 위치해 있으며, 3평 남짓 크기로 지어졌다.

북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광주 북구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치료·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주민에게는 1회(1개월분)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의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 원 ▲5인 145만 75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수와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광산구, 2020 광산수레바퀴 제작·배포

광주 광산구가, 현장 복지사례관리자의 업무를 돕는 가이드 맵 ‘2020 광산수레바퀴’를 제작해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례관리 민간 협력기관에 배포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공공과 민간이 협업으로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가이드 맵은, 네 번째 발행되는 책자로, 기관별 복지정보와 변화된 주요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욕구·문제별 복지서비스 지원, 휴먼서비스네트워크기관 사업소개, 사례관리 초기상담·사후관리 진행 노하우를 비롯해 21개 동별 복지지도와 자원 현황, 희망복지팀 주요활동이 망라돼있다.

임형택 기자

농식품스마트소비사업 ‘농·소·정 간담회’ 성료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협력방안 모색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 이송자)는 지난 7일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도지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농식품스마트소비사업 지역

농·소·정 간담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 회의실에서 가졌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농·소·정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개

최하고 기관, 소비자, 생산자와 함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농·소·정 간담회는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 장인영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장, 박종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장, 농협로컬푸드 담당자, 소비자단체, 생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를 통해 로컬푸드활성화, 농가소득증대, 안심 안전 농산물구매 등 협력방안 논의 및 지역 주요 농정현안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우수한 농산물 판로 확장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송자 회장은 “지역 로컬푸드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식품스마트사업으로 당면한 지역 농정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순·박순철 기자

전남도,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운다

2만4000여 건 토지 대상 조사

전남도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조사사업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일본인 명부에 없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너차 이상의 일본식 이름으로 된 토지 2만 4000여 건의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남도는 75년 소수권 변동이 없는 토지를 조사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창씨개명한 사람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가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표기가 없어질 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는 9월까지 시군에서 정비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해 정비목록을 1차로 작성한다.

이어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은 관계기관과 함께 토지대장·등기부등본 일원화 사업을 시작하고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조반정미 단계적으로 국유화 절차에 나선다.

도는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며 일본식 이름으로 등재된 토지의 소유자, 상속인 등은 제적부 확인을 통해 사유재산임을 입증,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애숙 토지관리과장은 “일본식 명의로 된 재산의 공적장부 정비와 국유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 ‘송정지하차도’ 점검

김종효 행정부시장 현장 방문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8일 광산구 소촌동 송정지하차도와 송정동 송정배수펌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영광동’으로도 불리는 송정지하차도는 지난 2008~2010년 세 차례 물에 잠기는 등 차량 침수피해가 잦아 장마철 침수우려 집중관

리 지역으로 꼽힌다. 송정배수펌프장은 송정동과 도산동 저지대지역의 상습침수 예방을 위해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김 부시장은 이날 장마철을 대비한 시설관리 실태와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을 경우를 가정해 비상발전기와 배수펌프가 동 여부, 소방서 협조를 통한 긴급



배수체계, 교통통제 시 우회로 안내, 기상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 매뉴얼을 확인했다.

김정환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인건비 보전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당연락처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4분위	5분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험료부담액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관리협회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엄수하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여유와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